고속철 경주통과 백지화

백만인 서명 돌입

재가회의등 신행단체 18일 결단식…불교유적 훼손 '최대 법난'

정부가 경부고속철도 경주통과를 강행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불교계 신행단체들이 '경주노선 백지화운동'을 선언하고 1백만명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한국불교 재가회의(상임의장 서돈각)등 18개 불교신행단체는 지난 11일 '고속철도 경주통과 백지화운동'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준비위원으로 고은(재가회의 공동의장) 안동일(재가연합 공동회장) 한상범 교수(교수불자연합회장)를 선임했다.

추진위는 이날 대통령, 문체부장관, 건교부장관, 4개 정당 대표, 국회의장 앞으로 보낸 선언문을 통해 "정부의 고속철도 경주통과 결정은 △28개 유적지등 민족문화가 파괴되는 민족정신 상실의 정책 △세계 10대 유적도시의 보호를 외면한 국가적 수치 △1천년 불교유적 훼손하는 최대의 법난을 초래하는 정책이다"며 "경주노선 계획이 백지화될 때까지 각 종단과 소속사찰, 신행단체가 앞장서 범국민운동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추진위는 오는 18일 오후2시 불교방송 3층 법당에서 '고속철도 경주통과 백지화운동 결단식'을 갖고 1백만 국민 서명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한편 고속철도 경주통과 백지화 추진위는 결단식에 앞서 각종단과 사찰, 신행단체의 동참을 받고 있다. (02)277-2676

전국체전 관계자에 불국사, 간식등 제공

지난 8일 막을 내린 전국체전에서 불국사(주지 설조)가 종교단체로는 처음으로 전국체전 준비요원들에게 떡과 과일등 간식을 제공해 화제가 되고 있다.

불국사와 70여개 말사는 체전준비기간인 지난 8월20일부터 준비요원 및 관계자 2천여명에게 매일 떡과 과일을 제공했으며 체전기간에는 포항종합경기장에서 찻집을 열어 매일 3~4천여명의 시민들에게 전통차를 제공했다.

불교자원봉사센터 교계 첫 한봉협 가입

조계종 '불교자원봉사센터'(단장 시현스님)는 지난 6일 한국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 불교계에서는 처음으로 가입했다.

영산대재 전국 곳곳서 봉행

부산아시안 성공 기원·팔관대재 등 잇따라

가을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연등재를 비롯 영산수륙대재등 각종 행사가 한창이다.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회장 정관스님)는 오는 28일 오후 2시 을숙도에서 낙동강 연등대법회를 봉행한다.

금년으로 5회째를 맞는 낙동강 연등대법회는 수륙대재, 2002년 아시안게임 개최 기원 대법회, 불자연예인 공연, 유등 및 불꽃놀이 등이 펼쳐진다. 이어 식후행사로 유등행사가 봉행될 예정이다.

태고종(총무원장 서봉스님)도 오는 20일 봉원사에서 제2회 팔관대재를 봉행한다.

이번 팔관대재는 광복 50주년 기념법회와 생전예수재, 10만관등법회로 나뉘어 치뤄진다.

팔관대재를 준비하고 있는 총무원의 한 관계자는 "종도들의 자긍심 함양과 종단위상정립을 위해 준비해왔다"며 "인간문화재 50호인 영산보존회 스님들의 집전으로 전통불교의식을 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관음종(총무원장 홍파)은 지난달 29일 안동 임하댐에서 수륙영산대법회를 개최했다. 또한 담양불교사암연합회(회장 수진)도 지난 3일 담양 추성경기장에서 18개 사찰 1천5백여명의 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륙대법회를 성황리에 봉행했다.

"현안문제 조속해결"

월하종정 원장에 당부

조계종 월주 총무원장 스님은 지난 10일 오전 통도사 정변전으로 종정 월하스님을 예방하고 종단 현안 전반에 대한 종무보고를 했다.

월주스님은 월하 종정에게 △종토세·토초세 감면 △사찰관람료 자율화 △불교박물관 건립의 정부지원 △불교관계법 개정 등의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

대행스님 부산법회 1만명 '성황'

중앙승가대 발전기금 4천8백여만원 모금

중앙승가대학 발전기원 대행스님 부산법회가 지난 8일 KBS홀에서 사부대중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법회에서 대행스님은 "일체를 주인공에 맡기고 그대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간절하게 참구하라"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접수된 4천8백여만원의 보시금은 전액 중앙승가대학 발전기금으로 전달된다.

정관개정 재요구

조계종 법인대책위

조계종 산하 법인대책특위(위원장 정우스님)는 지난 7일 총무원 청사 4층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선학원측에 조계종 종지봉대를 정관에 삽입할 것 등을 재요구키로 했다. 또한 정우 청화 혜창 현응 성문스님으로 소위를 구성, 선학원 이사들과 다시 접촉키로 했다.

대책특위는 또한 집행부에 법인을 관리하는 법인관리법안 성안을 다시 요구, 차기종회서 통과시킬 것을 결의했다.



◇중앙승가대학 발전기원을 위한 대행스님 초청법회가 지난 8일 부산 KBS홀에서 1만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됐다. 〈부산=박병근 기자〉

조계종 중앙신도회 발기대회

내달 11일 조계사…준비위 출범

조계종 중앙신도회 발기인대회가 11월11일 조계사에서 개최된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결성준비 실무위원회는 지난 8일 총무원 불교회관에서 제1차 집행위원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범어사 신흥사 직지사 등 교구본사 신도회와 신행단체 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중앙신도회 발기인대회와 함께 준비위원회를 결성키로 했다.

중앙신도회 준비위원회는 72~108인으로 하고 교구신도회 직능신행단체 개별인사의 비율을 1:1:1로 하기로 했다.

한편 조계종 교구본사 가운데 신흥사 월정사 법주사 화엄사 직지사가 교구신도회를 구성했으며 총 9백여만명의 신도가 등록했다.

"불교계 통일의지 보여야"

평불협 '남북한 법령 세미나'

평불협(상임부회장 법타스님)은 지난 11일 종단협의회 강당에서 통일문제 관계자와 스님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화통일 염원 불교인 하나로 행사 '남북한 법령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박원순 변호사와 최용기교수(창원대)가 '한국의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특별법' '북한의 신헌법과 노동당 강령 및 규약'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최교수는 이 자리에서 "불교계가 통일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불교계의 통일의지에 대한 확고한 위상정립으로 통일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주제발표 후에는 토론자로 참석한 연기영(동국대 법학과) 백경남(동국대 정외과) 강광식(한국정신문화연구원) 고준환(경기대 법학과)교수가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학점은행제 첫 도입

동국대, 차등 납부도

동국대(총장 송석구)는 지난 9일 기자회견을 갖고 대학 정원이 자율화되는 98년도부터 졸업연한과 학기당 이수학점에 관계없이 필요한 과목에 한해 등록금을 내도록 하는 학점은행제도를 실시키로 했다.

동국대에 따르면 대학졸업자는 물론 중퇴자도 재교육을 원할때 졸업연한과 학기당 총 학점수에 상관없이 필요한 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뇌사자 장기기증 합법화

의료·법조·종교계 협의 추진…'뇌사판정 신중 기해야' 여론

보건복지부가 지난 9일 뇌사를 인정하고 뇌사자의 장기 이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키로 했다고 밝혀 생명공양실천본부등 종교계가 앞장서 벌이고 있는 장기기증운동이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장기이식과 관련된 정보를 총괄 관리하고 공여된 장기의 분배 등을 전담하는 '장기이식 정보센터'를 설치할 예정으로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 1억5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추진에 앞서 사전에 의료·법조·종교계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심장사를 사망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뇌사도 사망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는 판정이라는 찬반 양론으로 논란이 가중돼 왔다.

의학계는 뇌사상태에서 대부분 4~5일 이내 심장기능이 멈추고 아무리 길어도 14일 이내에 반드시 죽게된다고 볼 때, 뇌사자의 장기를 다른 사람에 이식해 생명을 구할 수 있으면 사회적으로 유익하다는 의견이다.

법조계나 종교계 일부에서는 뇌사 인정을 명문화하면 사망시기에 따른 민법상의 분쟁들과 인명경시 등의 우려를 들어 법제화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펴왔다. 그러나 장기이식이 보편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장기기증과 관리 수술대상 선정등을 공정하고 원할하게 총괄하는 관리법안을 정비해야 한다는데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교육포교 토론회 개최

27일, 어린이지도자련

대한불교 어린이지도자연합회(회장 철오스님)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조계사 문화회관에서 '어린이 교육포교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황옥자(동국대 교수) 한정섭(한국불교교화원 이사장) 박정자(전 청룡국교 교장)씨 등이 '현사회 아동교육의 문제점과 방향' '어린이 교화의 불교경전상의 근거' '어린이 포교의 문제점 및 방향'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무료양로원 '소향원' 기공

광주 관음불교회관…50여명 수용

광주 관음불교회관(관장 정옥현)은 지난 7일 무의탁 노인들의 보금자리가 될 무료양로원 소향원(전남 화순군 춘양면 우봉리 495의 1) 기공식을 가졌다.

소향원은 관음불교회관과 광주·전남불교신도회(회장 김두원)가 주축이 돼 4년여의 준비끝에 건립하게 됐다. 소향원은 대지 4천평, 건평 2백17평의 규모에 목욕탕 오락실 세탁장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무의탁 노인 50여명을 수용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소향원은 앞으로 병원 및 요양시설 여가시설 등 2천평 구모의 노인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하는 것을 비롯, 각종 노인편의시설을 순차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소외계층 원호사업 전개

대불청 서울지구…22일 기금마련 행사

대불청 서울지구(회장 김규범)가 '소외계층 원호사업'을 전개한다.

서울지구는 지난 9일 제8차 정기이사회를 갖고 서울지구, 사자암, 법련사, 금강정사, 무애원의 '주간부서장 5인으로 구성된 원호사업집행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소외계층 원호사업은 오는 22일 동국대학교에서 개최될 불청대회에서의 기금마련 불청먹거리 잔치를 시작으로 마련된다. 또 생명공양 실천본부와 함께 장기기증 활동의 의지를 함양하는 홍보대회도 개최한다.

뿐만아니라 보육원·재활원 봉사활동과 소외계층 원호사업의 취지와 의미를 다지는 강연회도 11월 중에 펼칠 계획이다.

법문대회 개최

29일 한국불교교화원

한국불교교화원(이사장 한정섭)은 오는 29일 동국대 동국관에서 불교강연법문대회 및 중앙포교사·법사 품수식을 개최한다.

포교사와 법사양성을 위해 마련된 법문대회는 생활불교를 실천하는 내용으로 입상자는 강연법사로 추천된다.

한편 불교문화원은 이날 승과학과를 졸업한 스님과 불교통신대학 졸업 재가불자를 대상으로 각각 포교사·법사 품수식을 거행한다.

사원 헌다작법 발표

삼광사, 다회별 차겨루기도

한국 사원차 발표회 및 차겨루기가 지난 7일 천태종 삼광사(주지 춘광) 지관전에서 태정차회 등 16개팀이 참석하여 다선일미(茶禪一味)의 풍류를 연출했다.

이날 행사에서 1부 한국사원 헌다작법 발표, 2부 일본말차 다례시연, 다회별 차겨루기, 축하공연이 펼쳐졌다. 차겨루기에서 신용석(태정차회)씨가 장원을 수상했다.

